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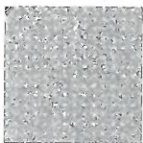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7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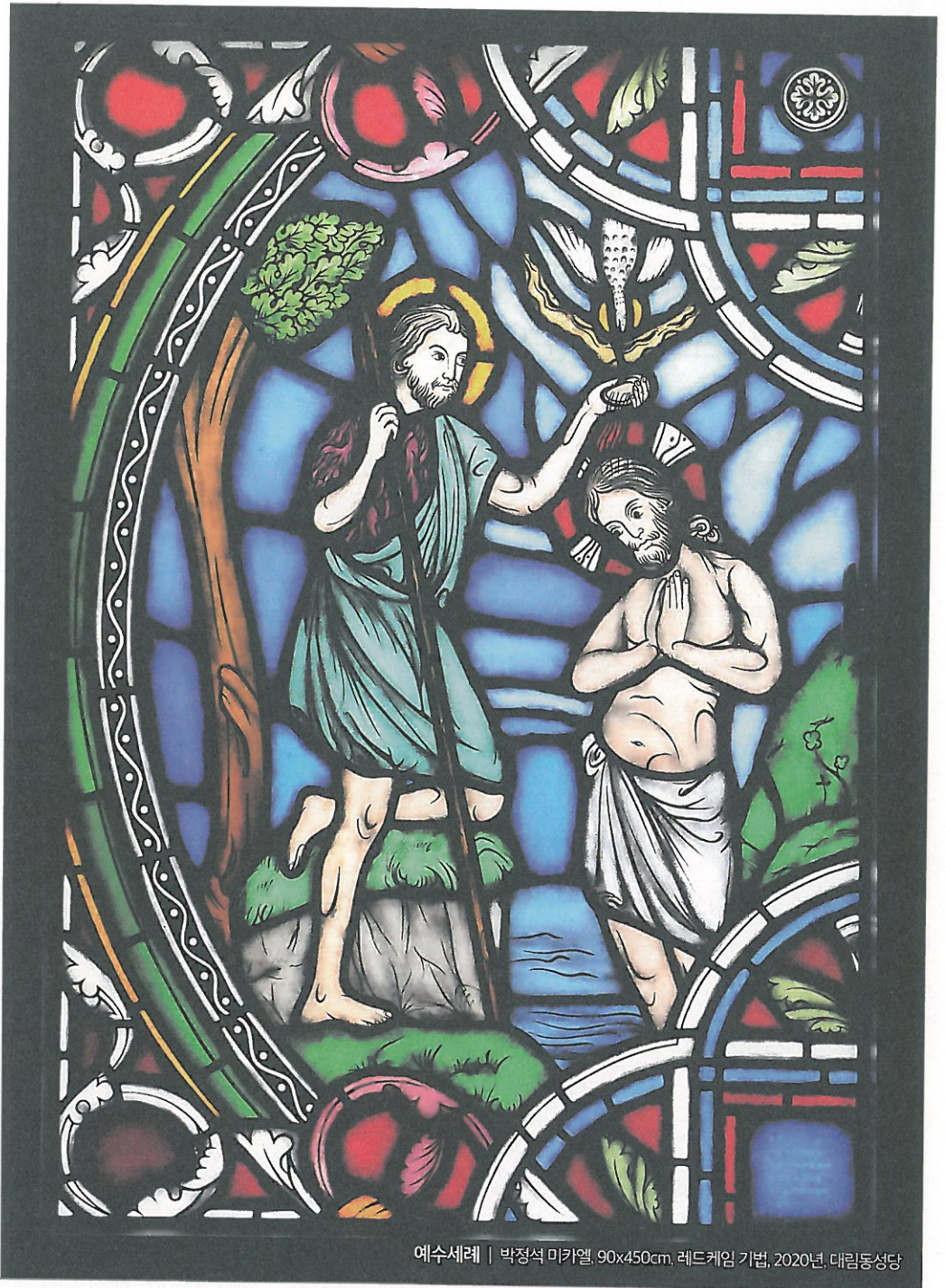
2023년 12월 17일(나해)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a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c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예수세례 | 박정석 미카엘, 90x450cm, 레드케임 기법, 2020년, 대림동성당

입당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 이사 61,1-2 7.10-11

화답송 | 루카 1,46-48.49-50.53-54(◎ 이사 61,10 7 참조)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굽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제2독서 | 1테살 5,16-24

복음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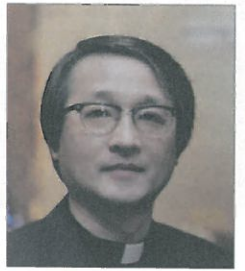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요한 1,6-8.19-28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홍근표 바오로 신부 | 요셉나눔 재단법인 사무총장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요한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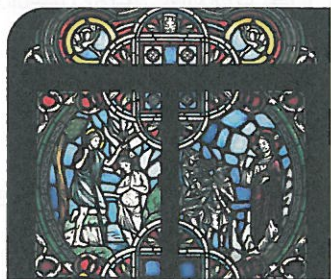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답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라면서, 오시기로 된 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언젠가 훈화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삶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형제자매들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막의 은수자’ 샤를 드 푸코 신부는 나자렛의 가난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서 나자렛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던 푸코 신부의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해 그를 성인품에 올리셨습니다.

샤를 드 푸코 성인의 삶에 매료되어 그분의 영성을 따랐던 요셉의원의 선우경식 원장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한평생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

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때로는 매우 거칠고 말썽도 피우고 직원들에게 우격다짐까지 하는 그런 폭력적인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회고한 내용은, 그가 평소 얼마나 그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노력했는가를 엿보게 합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며 평생을 헌신했는데, 오히려 그를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선우경식 원장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로 인한 충격에 많은 이들은 ‘지금 이 신앙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때에도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발병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이교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파라볼라노이’ 곧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 천여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그 후, 10년마다 40%씩 급격히 늘어나면서 로마제국 전체로 신앙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지금이 오히려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자선은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도 할당하지 않다.”(요한 1,27)

작품 설명

빛이 없다면 스테인드글라스는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투과하는 순간 작품은 생명을 얻고 그 내부에는 말로는 다 못 할 빛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빛없이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듯,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 없이는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없었음을 되새겨 봅니다. 그의 역할은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듯, 스테인드글라스도 하느님의 빛을 위해서만 존재함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그저 아주 작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밥부터 먹고 보자

저는 은평구 응암역과 역촌역 사이에 위치한 '밥집알로'라는 식당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저녁 한 끼를 든든히 먹으러 오는 밥집알로는 말이 식당이지 가정집을 임대하여 청년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밥집알로에서 '알로는 예수회 수도자로 살다가 어린 나이에 하느님 곁으로 간 알로이시오 곤자가(1568~1591) 성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가 청소년의 수호성인이라 의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응암역 근처에 이미 자립준비청년들의 모임 공간 '까페알로'가 있었기에 이름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까페알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랑방 같은 기능을 염두에 두고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청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문을 연 이유도 있었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관심사를 확인해 볼 여유 없이 문을 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가위 명절 연휴에 소규모의 청년들을 까페알로에 모아서 간담회를 열었고, 까페알로에 요청하고픈 활동이 뭐가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때 보편적인 지지를 얻은 내용이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까페알로는 주방 시설이 작았기에 우리는 밥집을 위한 공간을 하나 더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성인의 나이가 되면 양육시설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 탓에 드러나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은 이들의 퇴소 연령을 늦춘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을 떠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서로 따로 살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까페알로, 밥집알로가 시설을 떠난 청년들이 가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 | 예수회원, 꿈나무마을 공동체

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은평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밥집알로에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밥집알로는 함께 밥 먹기를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을 담고 있고,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요보호 청년들을 위한 집입니다. 저와 봉사자들은 함께 식사하며 청년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청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알아갑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보다 더 따스한 정서 지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전례를 선물로 남겨주신 것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듣게 됩니다.

밥집이 문을 연 지 두 해가 다 되어가는 요즘, 까페알로에도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골치 아픈 거 싫어하고 대략 본능에 따라 살아가던 자립준비청년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철학적인 질문과 옛날 이야기로 풀어가는 교양 교육 등을 중시하게 되었을까요? 일 년여 동안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나니 다른 곳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제가 생각하던 교양보다는,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것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대담 생탄

성탄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 구유 앞에서 침묵 중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0년 12월 23일 일반알현 중
생탄 구유는 복음에서 일어난 그 사실,
그날 일어난 그 일에 대한 교리교육이라고 강조하시며




그리스도 승천축일 2021년

P 형제님께,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P 형제님.

흔히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앙심은 약해진다, 또는 과학을 알수록 신앙과는 멀어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주의에 따르면 자연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오류나 미신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학주의가 퍼질수록 신앙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과학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오히려 과학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과학주의에 젖어 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과학을 이제 막 배우는 초심자 과학도는 쉽게 과학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햇병아리 과학도 시절에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학을 아직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과학이 보여주는 힘을 믿고 숭배하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요 거의 종교적인 ‘숭배’입니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다고 여기는 과학적 앎에 대한 믿음이요 숭배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입니다. P형제님, 저는 여기서 창세기 3장,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창세 3,5)

과학주의는 우리를 과학에 대한 숭배로, 지식에 대한 교만으로 이끌지만, 과학은 오히려 우리를 창조주와 그분께 대한 열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진리’의 한 부분을 보며 경탄하고 그 진리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자연에 대한 경탄은 우리를 창조주께 대한 경탄으로 인도하고, 진리 앞에

서의 겸손함은 우리를 진리 자체이신 분께로 이끕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이 깊은 과학의 대가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겸손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꼭 외적인 태도나 개인적 성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겸손’은 진리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지만, 자신의 과학 지식이, 나아가 과학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통해 살짝 보이는 진리의 한 조각 앞에 경탄하며 동시에 겸손하게 서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경탄과 겸손이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P 형제님. 몇 년 전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 메달을 받은 허준이 박사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론을 만들고 난 뒤 ...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는 신이나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숨쉬를 의심하게 된다. ... 인간은 영원히 모르겠지만 말이다.”(매일경제 2021년 5월 7일 자) 이 위대한 수학자는 인간은 영원히 모를 것이라 말했지만, 우리는 신앙의 빛을 받아 그 ‘모름’을 뛰어넘어 알고 또 보게 됩니다. 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곳 그 너머로 신앙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활성야 때 울려퍼지는 바룩서의 한 말씀으로, 형제님께 그리고 모든 분께 드리는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아, 돌아서서 슬기를 붙잡고 그 슬기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바룩 4,2,4)



도서 '성경'

나의 길벗, 나의 스승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2023년 마지막 도서칼럼에서 무엇에 대해 쓸까 고민했습니다. 여러 생각을 오가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에 대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회원에게 성경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게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회에 입회하기 훨씬 이전부터 중요한 책이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제 인생의 길벗이며 스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요 순간들을 지날 때 성경은 그 길을 함께 걷는 벗이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감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녔지만, 사춘기 시절 몇 년 동안 냉담했던 제가, 처음으로 하느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먹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어 제 심장을 건드리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한 15,15) 군더더기 없이 주님이 제게 말을 건네오는 듯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찢리는 말씀인,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리 2,3)를 처음 만난 때도 그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미풍처럼 저를 위로하고 때로는 정신 번쩍 나는 한마디를 남기며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머리’로는 믿고 싶지만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아 영혼의 진통을 겪던 아우구스티노가 로마서 한 구절을 만나면서 눈물을 쏟으며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을 때, 그런 말씀 체험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도 생활 초반 어느 피정에서는 늦깎이 공부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내적으로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한참 후에 마침내 “주님이 초대하면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허심(許心)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탄생 예고 장면

을 읽는데, 전에는 머문 적이 없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도” (루카 1,36)였습니다. 나이 든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통해서 당황한 성모님을 안심시키는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명 수행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키는 듯했습니다.

외적 어려움과 내적 황량함 속에 오랫동안 영혼이 메말라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지탱해 준 말씀은 연도를 바치며 우리 입에 익숙해진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시편 130,1)였습니다. 라틴어로 기도했습니다. ‘De profundis clamavi ad te, Domine.’

성경은 제게 공부하거나 강론하는 책 이전에 기도하는 책이고 주님 얼굴을 뵈도록 돕는 벗입니다. 길을 찾던 대학 시절에도, 사면초가 같은 느낌 속에 동티모르에서 일했을 때도, 나약함과 나이듦을 체험하는 요즘도 그렇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가장 소중한 나의 길벗, 나의 스승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홍보위원회가 전하는
WYD 특집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그 출발점에서 들어본 목소리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공식 누리집
사진 제공: WYD LISBON 2023

홍보위원회 언론홍보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서울 WYD) 그 출발점에서 들어본 목소리

25일, 교구 청소년국의 주최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진행된 청소년·청년 미사와 행사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서울 WYD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 서울 WYD가 열리는 2027년까지 앞으로 4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리스본 WYD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스본에서의 가장 뜨거웠던 체험은 무엇이었는지, 서울에서는 어떤 WYD가 펼쳐지길 기대하는지 들어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한 순간

세계청년대회는 ‘교황님의 초대에 대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교황님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일까요? 순례자들의 동반자로 함께한 이준 신부님(창4동 본당)은 “교황님과 함께 기도했던 모든 순간이 인상적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인종·국가·언어·나이와 같은 모든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라는 이준 신부님. 서울 WYD의 참가자들도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뛰어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리스본에서는 WYD 현장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모습도 자주 목격됐는데요. 박예슬 기자(cpb)는 “교황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WYD 본대회 3일 차 ‘교황 환영 행사’부터 참가자들과 함께하시는데요, 박 기자는 “젊은이들이 온종일 기다린 교황님을 보며 환호를 외치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 역시 가톨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에 마음이 벅찼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이곳저곳을 동분서주하며 누빈 박 기자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서울 WYD’가 되기를 바랐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을 고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WYD

리스본 WYD의 교리교육 시간, 의정부 교구의 유일한 청소년 순례자로 참가한 다연 양이 나눔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자 의정부교구 언니·오빠들의 열렬한 환호가 쏟아지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특별한 WYD를 보내고 왔을 다연 양의 인상적인 순간은 무엇일까요?

다연 양은 “교구대회와 본대회 기간 마추친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

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드리거나 휠체어를 들어주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을 보며, 단순히 ‘나는 천주교 신자야.’가 아닌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편견 없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다연 양.

올해 수능을 치른 다연 양은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고, 우리가 리스본에서 받았던 사랑을 다시 베푸는 서울 WYD가 되길 바라요. 저도 ‘청년’으로서 한몫하고 싶어요.”라고 기대와 포부를 밝혔는데, 다연 양의 활약이 벌써 기대됩니다!

침묵 속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젊은이들을 비롯한 WYD의 모든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교를 나누며 하나 됨을 느끼고, 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는데, 동반자로 참가한 김진희 수녀님(살레시오수녀회)은 가장 벅찼던 감격의 순간으로 “밤샘 기도 중 성체현시가 되자 일순간 흐르던 정적”을 꼽았습니다.

수녀님은 “그전까지도 시골벽적하던 수십만의 청년들이 다 함께 깊은 침묵에 잠겨 기도를 드렸어요.”라고 설명하면서, 서울 WYD에서도 “성체조배와 떼제기도 등을 활용해 청년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열망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CHRISTMAS FEST
2023
12.24-12.25
명동성당 일대

명동성당 겨울을 밝히는 골든 별

장미 정원 & 빛 축제

12월 2일(토) ~ 2024년 1월 7일(주일)
명동대성당 들머리

성탄 마켓

12월 24일(주일) ~ 25일(월)
가톨릭회관 앞마당

성탄 공연(연극)

1 재수탱이 시몬

12월 24일(주일) 17시 · 19시30분
파밀리아 채플

2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12월 25일(월) 17시 · 19시30분
파밀리아 채플

들머리 야외 공연

1 12월 24일(주일)

18시 cpbc소년소녀합창단
18시50분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19시40분 브라스밴드 '비상'
20시30분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2 12월 25일(월)

11시 아코디엠
12시 아코디엠
18시 마니피캣 어린이합창단
18시50분 당신이 듣고 싶은 성가팀
19시40분 마니피캣 어린이합창단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후원

서울특별시 PAN COMMUNICATION



유튜브 '가톨릭튜브' QR
명동 겨울을 밝히다 행사 안내

오늘(12월 17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1984년부터 매년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기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자선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 봉헌 요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모든 일반알현과 삼종기도 때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주민들도 함께 기억하시며, 특히 '특별 기도의 날' 안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기억하며 기도드리자고 초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 동안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 분들께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이스라엘 주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구의 모든 본당은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까지 매 미사 전이나 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12월 31일 송년 미사 전 평화를 위한 성체초배 혹은 묵주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평화방송 TV · 라디오 성탄 미사 생중계

명동대성당 밤미사	12월 24일(주일) TV 23시 45분 · 라디오 24시
명동대성당 낮미사	12월 25일(월) TV · 라디오 12시
바티칸 밤미사	12월 25일(월) TV 3시 20분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0년 12월 20일 이내수 아우구스티노 신부(38세)
- 2011년 12월 22일 용동진 바오로 신부(56세)
- 2013년 12월 20일 김진규 다니엘 신부(36세)
- 2014년 12월 21일 박노현 요한크리스소스토모 신부(67세)
- 2021년 12월 22일 김택암 베드로 신부(83세)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구청 알림

제57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자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12월21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2024년 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분야: 대학원 학비 장학금 지원, 학위논문 작성비 지원, 국내·외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기간: 12월31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접수(마감당일 우편소인 유효)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접수: 2024년 1월3일(수)~6일(토) 인터넷 접수
 문의(입학):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시복시성 기원미사(193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배문호 베드로'
 때: 매월 셋째주(화) 12월19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본당 미사)
 때, 곳: 1397차 미사 12월1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숙천 본당, 순천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12월22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학교사목부 교육봉사자 모집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인성교육'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건진성사 받은 신자, 만 20세~60세 해당자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교육일시: 2024년 1월3일~5일, 1월10일~12일
 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11월27일~12월29일
 회비: 10만원 / 문의: 02)553-7321(일, 월 휴무) 자세한 문의는 전화·홈페이지(www.kycc.or.kr) 확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성인 개인전: 1전시실
 이종석 개인전: 2전시실
 윤영선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3일(수)~21일(목)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4년 1월6일(토)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2024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상반기 교회음악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종교) 교회음악가 자격증수여
 원서접수: 2024년 1월8일(월)~26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개강일정	2024년 3월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면접전형(실기)→합격자발표→등록

인준단체 알림

모임

13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8259-7680
 때, 곳: 12월19일(화) 13시~17시, 중앙동성당 / 강사: 이상기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곳: 2024년 3월1일~2일, 전주교구 성지순례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눈꽃산행 2024년 1월6일~8일·1월12일~14일·1월19일~21일·1월27일~29일·2월3일~5일·2월14일~16일·2월27일~29일, 3월1일~4일(추차도)·3월8일~10일·3월13일~16일(추)·3월18일~20일·3월23일~26일(추)·4월11일~13일·4월16일~18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추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12월22일	이상기	12월29일	양창우 신부
--------	-----	--------	--------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2차	12월29일(금)~2024년 1월6일(토)	문의: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061)373-3001,
제124차	2월9일(금)~17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눈꽃산행	2024년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2월2일~4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성지순례(추차도)	3월21일~24일, 4월2일~5일
자연순례	3월10일~12일, 3월16일~18일

교구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예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2024년 2월17일~19일(수도원·대구 17곳)·3월1일~4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3월14일~17일(전주 11곳·광주 4곳)·4월20일~24일(울릉도·독도·수도원)·서울 명동(대형버스) 출발
국외	5월15일~27일, 독일 수도원·바티칸·이탈리아

가정선교회 2024년 1월 피정·미사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전 영성 피정	1월3일(수) 12시30분~17시 / 강사: 한철호 신부, 맹경순 아나운서,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도 미사	1월6일(토) 12시30분~17시 / 강사: 박현민 신부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월20일(토) 12시30분~17시 / 강사: 윤창호 신부 /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평화의 모후 청년 썸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12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12월27일(수)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영성센터(명동)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2024년 1월20일(토), 단내성가정·어능성지(수원교구) /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골롬반 겨울 청년 피정 / 문의: 010-3817-0567
 때: 2024년 1월13일(토) 10시~17시 / 대상: 23세~39세 신자
 1월7일까지 접수(bit.ly/ColumbanRetreat01)
 회비: 1만원 / 주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센터·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국악성가연구소)
 성가, 가곡 / 초보자 환영
 강사: 강신옥 / 문의: 010-2252-2974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2024년 1월17일~31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36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9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개강: 2024년 1월4일(목) 중·고급반 / 010-6245-6096
 인원: 중·고급반 약간명 / 접수: 12월17일~1월4일(선착순)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	------------	-----	------------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개강
 회비: 6개월 과정 12만5천원(교재비 5천원 포함)
 문의: 02)995-7394(scdeaf01@hanmail.net)

2024년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9호
1월10일(수)	13시30분~15시	
1월11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1월12일(금)		19시~20시50분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4년 1월16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가톨릭성서모임 독서클럽 '불멸의 화가 카라바조'
 저자에게 직접 듣는 '카라바조'와 그의 미술세계
 강사: 고종희 교수(한양여대 명예 교수)
 접수: 홈페이지(biblemove.com) / 문의: 02)824-4363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2024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접수기간: 2024년 1월3일(수)~6일(토) / 모집: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 전형방법: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입학문의: 032)830-7022, 3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211차 한국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
 대상: 가톨릭 인격적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
 때: 2024년 1월22일(월)~26일(금) 9시30분~17시
 곳: 영성센터(명동) B동 202호 / 문의: 02)727-2358
 회비: 18만원 / 신청방법: www.teenstar.or.kr

예수고난회 다네이 고전읽기(Zoom)
 “혼자 읽기 어려운 고전을, 함께 읽는다.”
 읽을 책: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 010-9503-1127
 때: 2024년 1월~2월 매월 첫째주·셋째주 (화)·(목) 오후 7시30분, (수) 오전 10시 / 회비: 3만원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4년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노틀담오르프 지도자 과정·예술 피정
 문의: 010-7392-1227 권 마리 요한나타 수녀

1) 노틀담 오르프 지도자 과정
 내용: 3급, 음악과 음악직업 교육
 대상: 예술강사 희망자, 예술치료사, 교사
 때, 곳: 2024년 1월3일~6일, 노틀담 교육관 3층

2) 노틀담 예술 피정 모여라 6070
 때: 1월12일·19일·26일 13시~16시
 곳: 노틀담 교육관 3층 / 내용: 6070을 위한 예술 피정

바오로딸 해하나두 1월 프로그램 / 문의: 010-9759-0882

히느님과 인간의 서사를 만든 성경 인물들	매주(금) 15시~17시 4회 / 주원준 박사
복독시네톡(책과 영화가 만났을 때)	2024년 1월6일(토) 14시~17시
블루베일 성가클래스	매주(금) 14시~15시
새해맞이 피정	1월27일(토) 14시~17시30분 / 김재덕 신부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1월 개강, 각 6주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화	신유박해를 바라보는 여섯가지 시선	소진형 박사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귀환시대	주원준 박사
수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
목	수도사들의 화가 수르바란의 미술로 살펴보는 가톨릭 영성과 신심	김현직 신부
금	요한 신부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	김민 신부
금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번째 길	최지원 수녀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2024년 1월~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1월2일(화)~3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시스피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도미니코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1961년 이후)
 문의: 010-2740-1606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회원 모집 / 문의: 010-9098-6765, 010-4189-8396
 대상: 가르멜 성인 성녀들의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 교우 / 2024년 2월14일까지 접수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강사: 홍성남 신부 / 02)6253-3373, 010-8360-3700
 때: 12월18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일 첫째(주)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겨울 성소 피정
 1)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 문의: 02)828-3522
 때: 12월18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2) 2024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 문의: 010-6221-3520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12월31일까지 접수
 때, 곳: 2024년 1월19일~21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12월21일(목)	10시(미사), 사당5동성당
2024년 1월3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2월26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아퀴나스합창단 성탄음악회
 Vivaldi, Magnificat & Gloria / 지휘: 최호영 신부
 때, 곳: 12월22일(금) 19시30분, 서원동성당
 문의: 010-6807-2704 김정규 부단장

가톨릭여성연합회 12월 정기월례회
 미사: 조성풍 신부(명동성당 주임) / 문의: 02)778-7543
 때, 곳: 12월19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내용: 송년미사 및 연말나눔 행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한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3년 동교동 문화축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3 동교동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생활성가로 진행되는 '연말음악축제', 청년작가들이 준비한 '청년작가 플라마켓',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338-7830
 때, 곳: 12월23일(토) 13시~18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2월26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0층 소성당 101호

햇살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상담전화): 02)744-0841 (일)·(월) 12시~15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활동운영팀 /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2024년 1월12일(금)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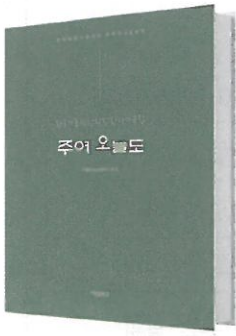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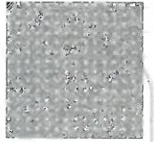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명동법집) 직원 모집
 분야: 주방조리 및 배식 / 자세한 내용,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은 가톨릭 굿뉴스 홈페이지-게시판-홍보마당-구인·구직 참조

우리농본부 총무회계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업무: 회계, 총무, 후원회원 관리 1명
 채용일: 2024년 1월2일(육아휴직 대체)
 서류: 홈페이지(wm.or.kr) 참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전교가르멜수녀회	12월23일(토) 14시	본원(통의동)	010-5894-7764 문자 문의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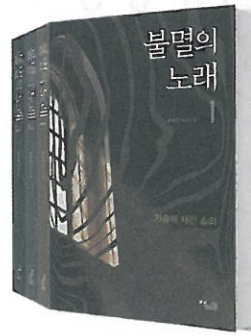


신간

에파타 성가곡집
주여 오늘도

이형진 편저
에파타 | 104쪽 | 1만3천원
문의: 010-6379-1715(www.song4god.com)

한국 가톨릭 유일의, 성가대용 창작 성가곡집을 출판하는 '에파타'가 창간 5주년 기념 특별판 성가곡집 《주여 오늘도》를 출간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에파타 활동 작곡가들의 대표곡 10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악보 보기, 큐알(QR)코드를 통한 파트 연습도 가능하다.



신간

불멸의 노래
(1, 2, 3권 세트)

류은경 지음
책마실 | 1권 391쪽 · 2권 432쪽 · 3권 448쪽
5만원 | 문의: 02)2633-4509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유'는 순한 목숨을 바친 기나긴 투쟁의 산물이다. '종교의 자유'도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은 모진 박해에도 아랑곳없이 한국 천주교의 씨를 뿌린 선구자들의 이야기다. 특정 인물 중심의 영웅 사관을 지양하고 '불멸'하고자 하는 두 세력을 대척점으로 다양한 인물 군상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가족극

재수탱이 시몬

공연: 12월 24일 17시·19시30분, 파말리아채플
무료 공연(좌석 예약은 미리 신청)
문의: 02)3789-7702

살기가 너무 힘들어 고향을 떠나 유다땅에 정착하여 하루 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유대인, 키레네 사람 시몬.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그의 이야기를 담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



디지털 앨범

가톨릭성가
미사곡, 축가

성바로말수도회
문의: 02)944-0895

바로말수도회 총 스물한 장의 실물 음반으로 발매했던 <가톨릭성가> 전집 중 슈베르트 미사곡(Deutsche Messe, D.872, 가톨릭성가 329~336번), 미카엘 하이든의 미사곡(Deutsches Hochamt, MH 560, 가톨릭성가 337~345번)과 더불어 신자들이 애창하는 곡인 '주님의 기도', '혼인, 사제' 등의 축가를 한데 묶었다.



음악극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성탄 공연: 12월 25일 17시 · 19시30분, 파말리아채플 / 문의: 02)3789-7702
연말 공연: 12월 28일 19시 · 12월 29일 15시 · 19시, 12월 30일 15시 · 19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문의: 02)3789-2586
무료 공연(좌석 예약은 미리 신청)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올해 마지막 공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를 성탄(12월 25일 17시 · 19시 30분, 파말리아채플)과 연말(12월 28일 19시 · 12월 29일 15시, 19시 · 12월 30일 15시, 19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 공연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톨스토이는 우리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 극을 통해 얘기하고자 한다.



영화

너는 내 아들

입장권: (월~목) 1만원, (금 오후~주일) 1만천원
문의: 02)3445-8848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천원 할인(단체 관람(10명 이상) 시 3천원 할인)

외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모리아 산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너는 내 아들>이 12월 21일, 필름포럼에서 개봉한다.



제2시대로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 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성탄 미사	일시	미사 시간
	12/24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주일미사) 오후 8시 (성탄 밤 미사) -대성진, 소성진(주일학교, 청년)
	12/25 (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6시

◎ 박진호 사도요한 보좌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12월 24일(주일) 11시 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잔치가 있습니다.

◎ 주일학교 성탄제

중고등부·반대	12월 17일(주일) 오후 1시
초등부	12월 23일(토) 오후 3시

* 12월 16일(토) 오후 3시는 주일학교통합미사로 12월 17일(주일) 오전 10시 30분미사는 없습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부터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1월~12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김규리	헬레나	7-1	천지혜	소피아	7-1
임채상	베드로	7-5	정혜운	루피나	7-5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12월 24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남성 울뜨레야

일시 : 12월 17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30일(토) 오후 3시 ~ 31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
만두(김치/고기) 15,000원

◎ 폐자원(헌옷, 캔, 페트병, 책 등) 재활용수거함 설치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폐자원을 통한 재활용 및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무실 뒤에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후원 결과

	일시후원		정기후원	
	건	금액	건	금액
일시후원	239	10,790,000	105	1,685,000
계좌이체	15			1,520,000
합계	254			12,310,000

*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입니다. 연희동성당 공동체의 환대 속에 모금을 하였습니다.
귀한 정성을 고통받는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선물로 전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무금 책정자 변경을 12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오늘은 자선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2. 1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31	855 (42.1%)	825 (40.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전현 데레사 상가 삼십만원
故 이덕금 마리아 상가 삼십만원
故 최해성 루가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12월 4일~10일)

익 명 이십만원 관선모 오천원
히영창 일백만원 문지원 이십만원
김선영 오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최지연 일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우성택 오십만원 권정자 이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故 전현 데레사 일백만원

◎ 우리들의 정성 (대림 제2주일)

교 무 금 11,160,000원
주 일 헌 금 6,100,500원

입당	481	봉헌	510,216,220	성체	153,183,175	파견	93
----	-----	----	-------------	----	-------------	----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